

잊혀져 가던 서역의 빛, 옛 영광을 찾아서

오 일 환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차 해외답사가 '중국 실크로드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2002. 8.6(화)부터 13일(화)까지 중국의 서안, 우루무치, 투르판, 돈황 등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답사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북경지역문화, 중원지역문화, 강남지역문화, 동북지역문화를 둘러보았기 때문에 중국지역에 대한 마지막 답사로 실크로드지역이 선정되었다. 실크로드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은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자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몇 군데만 정리해 보았다.

1. 번성하였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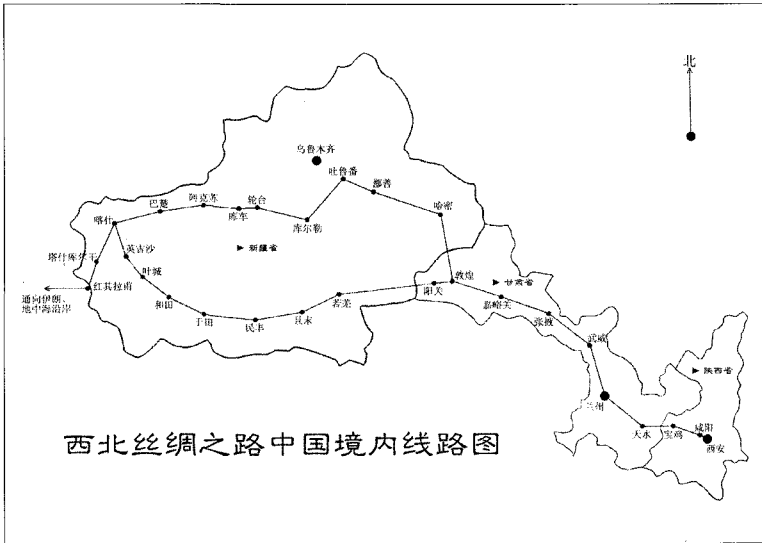
1) 서안, 함양지역

西安은 관중의 중심지이며 섬서성의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지역이다. 서주시대부터 1천여년 간 10여 개의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다. 서한시대 실크로드가 개척된 이 후 세계최대의 도시로 되었으며 동서문명 교류의 중심지로 되었다. 송대에는 섬서로가 설치되었으며 원대에는 安西路가 되었다가 奉元路로 개칭되었다. 명대에는 西安府가 설치되자 비로소 西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왕릉묘가 80여 곳에 이르며 실크로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서안은 대체로 鐘樓, 鼓樓, 碑林, 大雁塔, 小雁塔, 明 城壁, 清真大寺, 陝西歷史博物館, 半坡遺址 등과 교외지역의 驪山 華清池, 秦始皇陵과 兵馬俑博物館을 답사하는 것이 일반적 일정이다. 이외에 樓觀臺, 五岳의 하나인 西岳 華山, 玉華宮, 葯王山, 司馬遷墓祠, 黃帝陵, 壺口瀑布, 党家村, 統萬城 등도 지역 여건이 되면 답사해보는 것이 좋다.

陝西歷史博物館은 대안담 부근에 있으며 7만㎡의 면적에 5만5천㎡의 건축물로 1991년에 개관하였다. 11,000㎡ 면적의 3개의 전시실에는 장안 중심의 역사문물전시실, 소릉 6준도 등의석

* 경희대학교박물관 책임연구원



각품 70 여점이 전시된 석각예술 전시실 등 섬서지역에서 출토된 수만 건의 유물에서 3천여 건이 전시되어 있고 특히 40폭의 당나라 벽화가 보관되어 있다.

碑林은 文廟에 복송시대 1090년 13經이 보관된 후 비석을 수집하면서 박물관으로 되었다. 현재 7개의 전시실에 한나라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2,300여건의

의 비석이 있다.曲阜의 孔廟碑林, 西昌의 地震碑林, 高雄의 南門碑林과 함께 4대 비림으로 불린다. 임측서가 신강으로 유배 갈 때 쓴 비림이라는 글씨가 있다.

大雁塔은 慈恩寺에 있으며 자은사浮圖 혹은 자은사탑이라고 불렀다. 652년 당나라 때 자은사 주지였던 현장이 인도에서 경전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탑을 세웠다. 본래 5층탑이었으나 7층으로 고쳤고 다시 10층으로 보수하였다. 그러나 전란으로 훼손되어 현재는 7층만 남아있다. 동서 45m, 남북 48m이며 높이가 64m이다. 당 태종의 '唐三藏聖教序'와 고종의 '大唐三藏聖教序記'가 남아 있다.

小雁塔은 684년에 건립된 荐福寺(본명 獻福寺)에 자리하고 있다. 자은사탑보다 작다고 하여 불혀진 이름이다. 건립 당시는 15층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훼손되어 현재는 13층만 남아있다. 정방형으로 높이가 43m, 기단 넓이가 11.38m이다.

半坡遺址는 서안에서 동쪽으로 6km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仰韶文化 유적지이다. 5만여㎡의 면적에 주거구역, 토기 제작구역, 장묘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1953년 발굴이 시작되면서 주거지 45개, 저장고 200여개, 토기제작 요지 6개, 묘지 250개를 비롯하여 1만 여건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1958년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兵馬俑은 1974년 우물구멍 8개를 파던 중 5번째에서 1호갱의 동남쪽이 발견되어 발굴되었다. 1호갱에서는 동쪽을 향한 軍陣형태로 6천여개의 병마용이 출토되었다. 길이 230m, 폭70m이며 총면적이 16,100㎡이다. 2호갱은 6천여㎡에 1,300여개의 병마용과 전차 80량을 비롯한 대

량의 금속 병기가 출토되었다. 1979년 개관하였고 1980년에는 대형의 銅車馬가 출토되었다.

華清池는 驪山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주나라 때 驪宮이라고 하였으며 진시황에 의하여 驪山湯이라는 온천이 된 후 당나라 때 溫泉宮으로 되었다. 안록산의 난(756)으로 파괴되었고 1958년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

咸陽은 실크로드의 첫 번째 기착지로 서안에서 25km정도 떨어져 있다. 서역으로 떠나고 다시 만나기 위해 이곳에 머무르던 수많은 문객들이 주옥같은 문장을 수 없이 남긴 장소이다. 당나라의 시인 王維는 '渭城曲'이라는 시에서 '渭城朝雨邑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이라는 이별의 형상을 노래한 시를 남겼다.

함양지역은 진나라가 처음으로 도읍을 정한 이후 한, 당 등 11개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던 지역으로 섬서성 8백리의 중심지이며 서북지방의 요충지이다. 이로 인해 고분묘와 고유적지, 고건축 등이 1천여 곳이 남아 있다. 14개의 박물관과 문물관리소가 위치하고 있고 소장된 문물이 6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진, 한, 당대의 유물이 많다. 이에 咸陽博物館, 茂陵, 乾陵과 永泰公主墓, 昭陵 등이 주요 답사지역이며 이외에 大佛寺, 崇文塔, 楊貴妃墓, 三原 城隍廟 등이 있다.

咸陽博物館은 1371년에 건립되었던 文廟자리에 1962년 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진나라의 역사 문물진열실, 서한시기 11명의 황제에서 9명의 황제릉 문물전시실, 楊家灣 三千彩色 한나라 병마용 진열실 등 5천여 점의 진, 한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당나라의 황제릉은 20황제에서 서쪽 당고종 건릉에서 동쪽 당현종 태릉에 이르기까지 18개릉이 渭北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茂陵은 한나라 무제의릉으로 東陵이라고도 한다. 서안 북쪽 40km부근의 茂鄉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지금의 咸陽原, 五陵原이다. 위청, 광거병 등의 부장묘가 20여기에 이르는데 광거병묘 주변에는 16개의 대형 돌조각 동물상이 유명하다.

乾陵은 서안에서 80km정도 떨어진 건현의 북쪽 梁山에 위치하며 1961년 전국 제1차 중점문물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산의 허리를 뚫고 들어가 조성되었으며 이 후 축천무후가 합장되었고 永泰公主, 懿德太子, 章懷太子 등의 부장묘도 함께 28년에 걸쳐 만들어졌다. 본래 건릉은 남북이 각각 1,450m, 동쪽이 1,582m, 서쪽이 1,438m로 면적은 230만㎡의 규모로서 4개의 성문과 각종 건축물, 사당 등이 조성되었지만 안사의 난으로 훼손되었다. 건릉은 당대 18릉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완벽하며 두 황제가 합장된 유일한릉이다. 건릉 주변은 17개의 부장묘가 있는데 1960년부터 1972년에 걸쳐 5개의 부장묘가 발굴되었고 4,300여건의 유물과 다채로운 벽화

가 유명하다.

昭陵은 당 태종의릉으로 禮泉縣 동북 22km의 九峻山에 자리하고 있는 당나라 최대 규모로 소릉 6駿圖가 유명하다. 636년에 시작되어 13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閻立德과 閻立本 형제에 의하여 설계되었고 160여개의 부장묘가 있다. .

2) 우루무치, 투르판지역

신강은 張騫의 서역왕래 이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동서 문화교류의 결합지역이었다. 신강의 국경선은 5천여km이며 면적이 160만km²로 중국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동서로 뻗은 천산산맥이 신강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으며 남부에는 중국 최대의 분지인 타림분지가 자리하고 있고 중심에 타클라마칸사막이 있다.

우루무치는 몽고어로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뜻이다. 청나라 건륭제가 준가르반란 진압후 1763년에 迪和라는 이름을 부쳤고 1954년 우루무치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발 680-920m에 자리잡고 있는 우루무치시에는 붉은색의 암석이 주봉을 이루고 있는 紅山이 있다. 누운 호랑이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바라보고 있다하여 虎斗峰이라 한다. 산 정상에서 시내를 모두 관망할 수 있으며 9층으로 이루어진 10여m의 홍산탑이 妖魔山과 대치되어 있다. 홍산에는 아편을 몰수하여 아편전쟁의 계기가 되었던 임칙서의 좌상이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신강위그르박물관은 대대적인 증축공사로 인하여 별관에 임시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역사문물 전시실, 미이라전시실, 민족민속전시실 등 3개 전시실로 나뉘어 있다. 통행증인 '過所'를 비롯한 실크로드 관련의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하미에서 출토된 잠자는 미녀 미이라를 비롯하여 위그르족, 하자크족 등 10여 개의 소수민족의 민속유물 등 5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天山은 가장 높은 봉우리가 7,435m로서 동서 1,700km, 남북 300km의 넓이로 西高東低의 지형으로 신강성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쪽에는 타림분지, 북쪽에는 준가르분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빙하 물줄기가 6,890여 갈래이고 총면적이 9,500km²인데 60km에 이르는 빙하물줄기도 있다.

우루무치에서 120km정도 거리에는 西王母가 목욕하는 곳이라는 천산 天池가 자리하고 있다. 해발 1,980m에 자리한 천지는 예전에는 요지라 하였는데 남북 3400m, 동서의 가장 넓은 곳이 1500m로 총면적이 5km²이다. 평균 수심이 40m이며 가장 깊은 곳이 105m이다. 천지에서는 천산을 등지고 있는 5,400m의 만년설에 덮인 두번째 봉우리가 바로 보인다. 1982년에 제1차 國家

重點保護風景名勝區로 지정되었다.

투르판은 돌궐말로 '풍요로운 지방'이라는 뜻인데 양잠업으로 번성하던 곳이다. 천산 남쪽의 투르판 분지는 실크로드의 10번째 기착지로 5만여km²의 넓이에 최저 156m이하의 분지가 4천여km²나 된다. 이로 인해 6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기온이 30°C이상이며 지면의 기온은 최고 80°C를 넘기도 하므로 火州라 하였다. 중경, 무한, 남경과 함께 4대 火爐로 불린다. 한나라 때는 車師前國, 16국 남북조시대에는 高昌郡, 高昌國이었다. 당나라 때는 西州로 되어 漠北의 회계인을 서쪽으로 집단 이전시킨 후 고창 회계왕국으로 하였다. 원나라 때는 火州로 되었고 청나라 때 투르판직예청이 되었다. 1913년에 투르판현, 1985년 투르판시로 되었다.

투르판 지역에는 交河故城, 高昌故城, 火焰山, 베제크리크(柏孜克里克)석굴, 아스타나(阿斯塔那)고분군을 비롯하여 葡萄溝, 蘇公塔, 艾丁湖 등을 볼 수 있다.

交河故城은 투르판 서쪽 10km에 있으며 雅兒湖 故城이라고도 한다. 雅兒는 崖兒의 뜻으로 崖兒城이라고도 이른다. 당나라 때 안서도호부가 처음으로 이곳에 설치되었다. 남북이 1천m, 동서가 300m 정도이다. 하천 양쪽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과 남문 이외는 모두 30m 정도의 절벽이다. 1961년 전국 중점문화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高昌故城은 투르판시 동쪽 50km지점의 화염산 부근에 있으며 위그르어로 王城이라는 뜻이다. 한나라 때 서역원정에서 뒤쳐진 병약한 병사들을 모아 지세가 높은 이곳에 주둔시키면서 점차 昌盛해지게 되면서 고창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성은 사각형 모양으로 주위가 5km, 면적이 200만m²이며 높이가 11m내외이다. 외성, 내성, 궁성으로 구분된 왕성에는 12개의 성문이 있었으며 공방, 시장, 묘우와 거주지로 나뉘어 3만여 명과 3천여 명의 승려가 거주하였다. 당나라 때 玄奘 범사가 1개월여 머무르기도 하였다.

火焰山은 길이 98km에 폭9km, 해발500m정도로 최고봉은 871m이며 투르판 분지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여름의 기온은 40°C를 넘나들고 지표면의 태양열이 80°C에 이르기도 한다. 소설 『西遊記』의 무대이기도 하다.

베제크리크 석굴은 화염산 기슭에 있다. 남쪽 10km에는 고창고성이 있고 서쪽에는 투르판시가 50km떨어져 있다. 木頭溝河의 서쪽에 1km길이에 걸친 1,200m²의 면적에는 83개의 동굴과 40여개의 벽화가 있으며 특히 9, 20, 33굴이 다채롭다. 5세기 고창국부터 시작되었고 6-9세기에 극성기를 이루었으며 14세기까지 조성되어 있다. 1982년 전국 중점문화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아스타나고분군은 고창고성 북쪽 3km에 있는 고창왕국의 고관귀족, 서민 등의 묘지로서 10km에 이르는 면적에 부부 합장묘가 많다. 1988년 전국 중점문화 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이외에 艾丁湖는 투르판 남쪽 30km거리 있으며 동서 40km, 남북 8km이고 면적이 152km²의 소금호수이다. 가장 낮은 곳은 해발보다 156m정도 낮다. 蘇公塔은 투르판시 남쪽 2km에 있는데 술레이만이 자기 아버지 아민(額敏)을 기리기 위하여 1777년에 쌓은 저부직경 10m, 높이 37m의 원추형탑으로 아민탑, 투르판탑이라고도 부른다. 표면에는 15종의 도안이 장식되어 있고 내부에는 77개의 나선형 계단이 있다. 후덥지근한 기후 속에서 맛보는 포도계곡의 달콤한 포도와 함께 민속무용을 즐길 수 있고 5,000여km에 이르는 1,600여개의 카레즈 우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3) 돈황지역

敦煌은 하서회랑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三危山에 접해있기 때문에 삼위라고도 불렀다. 敦은 크다는 의미이고 煌은 盛하다는 뜻이다. 춘추시기에는 瓜州라고 불렀고 月氏族이 거주하였다. 한나라 때 장건과 광거병의 서역 출사로 돈황군이 설치되었다. 酒泉, 張掖, 武威와 함께 河西4군으로 불린다. 당나라 때 沙州가 설치되어 실크로드의 남로인 陽關과 북로인 玉門關으로 나아가는 중요지역으로 되었다.

돈황지역은 불교예술이 발달하여 莫高窟, 西千佛洞, 安西 榆林窟(石佛峽), 水峽口 등의 돈황석굴군과 백마사 그리고 영화 촬영장소였던 돈황고성 등이 있다.

莫高窟은 건축, 회화, 조각의 종합 예술의 보고로서 千佛洞이라고도 불린다. 명사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돈황에서 동쪽 25km거리에 있다. 4세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14세기에까지 1천여 년간 492개의 동굴에 2,415존의 불상과 45,000여m²에 이르는 벽화가 조성되어 있다. 스타인(1907), 펠리오(1908), 오파니(1910) 등에 의하여 유물이 반출되었다.

鳴沙山은 돈황에서 남쪽으로 7km정도 거리의 神沙山 혹은 沙角山이라고도 불리는 고운 모래산이다. 전설에 어느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을 하다가 이곳에서 잠시 머물자 그 날 밤 모래폭풍이 군사들을 덮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이 후 북과 나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고 한다. 동쪽 끝은 막고굴의 정상에 닿았으며 동서 40km, 남북이 20km정도로 높이가 수십m에 이르고 있다. 月牙泉은 명사산 아래에 있으며 초승달 형상의 모양처럼 생겼다. 동서 길이 218m, 남북의 가장 넓은 곳이 54m이며 평균 수심이 5m정도이고 가장 깊은 곳은 7m정도이다.

陽關은 돈황 서남쪽 70km지점에 있다. 옥문관의 남쪽 즉 陽地라해서 양관이라고 불렀다. 한나라 이래 실크로드의 남쪽 길로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다. 모래 언덕 정상부분에 봉화대가

있다. 새로 건축된 긴 회랑에는 陽關古道라는 편액과 ‘悲歡聚散一杯酒 東西南北萬里程’이라는 글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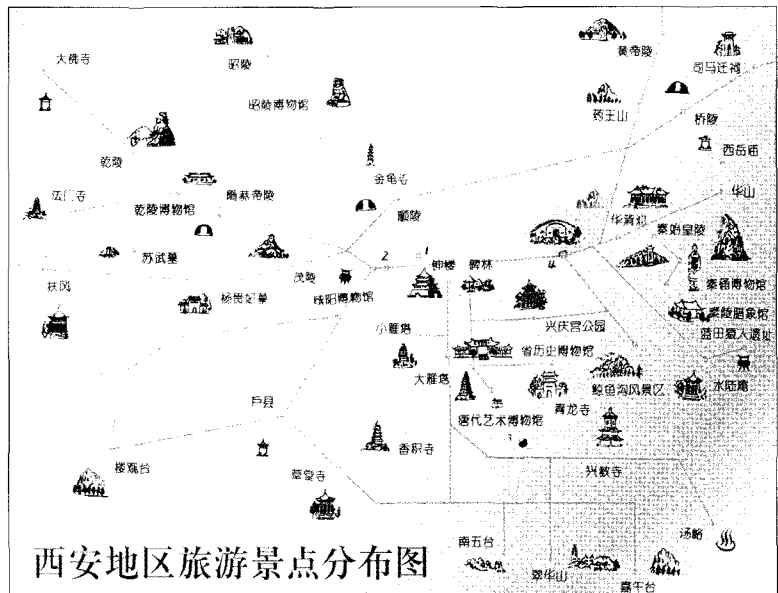
玉門關은 둔황에서 서북쪽으로 90km거리에 있다. 한나라 이후 서역 왕래의 가장 서쪽에 있는 관문으로 둔황에서 이곳에 이르면 바로 서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역의 옥을 수입하는 관문이라는 뜻의 옥문관은 동서 25m, 남북26m로 약 600㎡의 면적이며 높이가 9.7m, 두께가 3.7m로 서쪽과 북쪽에 성문이 있다.王之渙의 ‘出塞曲’이라는 시가 있는데 ‘黃河遠上白雲間 一片孤城萬仞山 羌笛何須怨楊柳 春風不度玉門關’이다.

3. 서부대개발의 꿈을 현실로

중국은 960만㎢의 면적에 13억이 넘는 막강한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55개의 소수민족과 더불어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동아시아의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내륙에 대한 경제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서부 대개발은 鄧小平의 증대한 2대 전략사상을 실천하고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江澤民 역시 ‘서부 대개발에 대한 모든 조건이 이미 완비되었고 이를 가속화하는 시기 또한 성숙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부 대개발에 대한 정책과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서부지역의 사회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추진방안이 실행중이다.

그리고 서부 대개발의 관문인 西安은 서부개발의 교두보로서 하이테크기술, 국제과학기술공업, 교육기관, 상업무역, 관광여행, 금융기관, 정보와 가공 등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안



은 서부대개발의 가장 선두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에 중국은 동부 연안도시의 경제개혁의 경험과 역사문화의 경험을 교훈 삼아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이 서안의 지위 뿐 아니라 섬서성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경제적 지위를 높여 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서안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개발은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경제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며 서부 대개발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더욱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7박8일간의 짧은 날이었지만 무척이나 기나긴 여정이었다. 다른 답사 때보다 잃어버리는 물건은 왜 그렇게도 많았는지, 투르판 역에서 야간열차에 오르기 위해 그 짧은 시간에 '5월 중대 앞으며 번호'를 해 보지 않았나(사실 무척 황당하였지만 최고의 히트가 되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눈썹 총각의 신들린 듯한 춤, 공연.

유적지를 확인한다고 해마다 버스를 놓칠 뻔하지 않나, 중국 공안이 무섭지 않다고 당당하게 사진 촬영도 하고...

비록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번 답사가 계획보다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여러 관장 및 학예원을 비롯하여 회장단과 김우림선생님, 그리고 지난 답사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테이프와 씨디에 사진과 자료들을 빼곡하게 담아 주신 채규돈과 하승희 선생님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학예연구원 해외답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음 답사지인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진다.